

달빛

신은자 (2009년 제5회 5·18문학상 수상작)

할멈은 담요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숨어버린 것이다.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간간이 차가 달렸다. 바람이 부는지 가로수의 잎이 서걱대는 소리가 귓가에 잡혔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다. 턱까지 끌어당겨 덮은 담요 속에서 부르르 몸을 떨었다.

이미 속까지 차고 들어앉은 추위를 떨쳐내는 건 어림없는 것이었다. 추위에 몸을 더더욱 웅그릴 때마다 나는 하늘을 응시했다. 어둠이 깔리고 나서 벌써 서너 번째 달이 얼굴 위로 내려오는 환상에 사로잡혔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깨어지는 환상이지만 달에 홀린 동안은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고향에서 멍석 깔고 누워 쳐다보던 그 달빛처럼. 아니 시골에 와 있는 것처럼 몽롱해졌다.

달빛 아래, 그것도 길가에 평상을 내다놓고 누운 처지라 더욱 울적한 밤이었다. 거리 잠을 자는 풍경을 남들이 보고 노숙자라 해도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더위에 방에서 탈출한 것처럼 스스로 위안삼으며 달빛 아래 누워 있었는데 한밤중이 되자 오갈 데 없는 두 늙은이의 초라한 황혼을 깨우쳐주듯 서늘했다.

초가을이라 낮에는 햇빛이 강했지만 밤에는 쉼지 않다는 걸 일깨워 주기라도 하듯 뼈마디가 쭈셨다. 기온 차가 급격히 벌어지자 방에 누워서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일을 저질렀다. 두 늙은이가 등 붙이고 자는 바닥이 깨졌거나 금간 곳이 없나 살펴보고 손을 봤다. 기름값이 무서워 연탄보일러로 바꾸고부터 방바닥이 금 하나 없이 말끔해야 안심이 되었다. 누추한 살림살이를 들어내고, 장판지를 걷어낼 때도 거리에서 자게 되리라는 걸 까맣게 몰랐다. 이 구석 저 구석 살피다 가늘게 금간 곳을 서너 군데 발견하고 결국 방 전체를 시멘트로 발라버렸다. 방바닥을 다 바르고 나니 이번엔 점포의 너절한 꼴이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쥐똥을 본 것 같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장의사로 밥 빌어먹는 자리지만 거뭇게 쌓여 있는 잡동사니와 살림이 협소한 공간을 더더욱 우중충하게 만들었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꾸겨 박혀 있는 가재도구들을 뒤적거리며 바닥을 살폈다. 모서리에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쥐가 들락날락했던 구멍을 보자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고영감, 아니 고씨! 이게 다 뭘 일인가? 뜬금없이”

칠순인 홍영감이 자기보다 하나 더 먹은 나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며 소리쳤다. 짐을 거리에 내놓는 걸 보고 이사 가는 걸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대충 설명하자 홍영감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방바닥을 보며 배관이 터져 물이 샌다면 모를까 일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데 큰 공사를 했다고 면박을 주었다. 나는 공사를 한 게 아니고 방바닥만 살짝 발랐다고 했다. 그래도 홍영감은 한 번 꼬투리를 잡은 것을 놓지 않았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 밑이 갈라져 있는 데서는 깊은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래서 거죽만 살짝 칠했다고 거듭 얘기했는데도 그의 뻔한 얘기는 듣기 거북할 정도였다.

“나이 들면 잠이 달아난다고 하지 않던가. 괜한 짓 했네.”

“해마다 그런 건 아닐세. 서너 해 잘 자다가 어느 날 문득 불면증에 시달리면 난 장판을 걷어내고 방바닥에 손을 대지. 바닥에 금간 곳이 있으면 말끔하게 바르거나 장판지를 바꾸거나 한다네.”

어느 날, 일하고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거리에서 격렬한 통증을 느꼈다. 다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맞은 것도 아니었다. 온몸이 따끔따끔하고, 머리통이 자갈 속에 섞여 마구 굴러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젊은 남녀가 몸을 약간 흔들면서 음악에 내맡긴 채,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방심한 듯 오직 두 사람만이 거리에 있는 것처럼 뚝 떨어져 있는 풍경, 어느 거리에서나 수없이 맞닥뜨리는 자유분방한 장면인데도 느닷없이 그 풍경에 가슴을 저미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비슷한 풍경인데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있고, 이렇게 가슴에 와 박히는 그림도 있었다. 청년의 모습에서 아들과 비슷한 곳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보리카락 같은 눈썹과 쌍꺼풀 없는, 우묵하게 들어간 눈이 아들을 떠올리게 했다. 초등학교 때인가, 왜 아들을 혼냈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야단치고 있다가 눈물이 그렇그런 눈 위에 꺼멓게 돌아난 아들의 눈썹이 점점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흘린 듯 바라보다가 아들이 눈물을 흘치듯이 팔로 쓰윽 문지르는 걸 보고 그 팔이 보리카락을 문댄 것처럼 몹시 따끔거릴 거라고, 내 눈썹을 슬며시 만져본 적이 있었다. 나를 닮았는가 싶어서. 그 기억이 십여 년 후 아들이 죽고 난 그해 보리를 베다 말고 누렇게 출렁이는 보리밭에 온몸을 내던지듯이 뒹굴게 만들었다. 할머니 놀라 왜 그러냐고, 보리카락 때문에 까끄러워서 그러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그 보리밭을 갈아엎어 버렸다. 누렇게 익은 보리를, 수확해야 할 보리를 모조리 갈아엎어버린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나를 실성했다고 했다. 할머니도 미친 사람 취급했다. 다 키운 아까운 보리를, 수확해야 할 열매를 갈아엎었다고 밥도 주지 않았다. 보리를 갈아엎었는데 밥 해먹을 양식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쌀 떨어진 지 오래라고, 보리 수확할 때만 기다렸노라고 바라바락 대들며 통곡을 했다. 그리고는 보리밭에 나가 흙무더기에 깔린 보리 이삭을 뜯어냈다. 나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 나는 고향을 떠났다. 그 후 문득문득 아들의 보리카락 같은 눈썹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부러 장판을 뜯어내고 요란법석을 떨었다.

“냅뉘유. 처음 고향 떠나 객지살이 할 때, 그해 겨울에 제가 연탄가스에 중독된 적이 있는 후로 어디를 가든 방바닥부터 보고 멀쩡해 보이는데도, 기름보일러를 때는데도 금간 곳이 있으면 시멘트로 발랐으니까.”

홍영감이 입을 썉 다시며 더 이상 방바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 잊어버렸다. 삼십여 년이 흘렀으니. 그래, 처음에는 그 때문에 이사 갈 때마다 장판을 들춰 보았지. 한 가지 홍영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게 있었다. 애초에 자식이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홍영감은 무자식 상팔자라며 위로했지만 먼저 간 아들에게 미안했다. 그리고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생각했다. 삼십여 년이 지났지만 혹 아들이 환생해서 이 세상에 와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곳에. 아니 나를 바라보던 청년의 깊은 눈매에. 나는 쓸쓸함을 감추듯 홍영감에게 말했다.

“갈 거 아니면 소매 걷고 들어서게.”

이 동네 불박이인 홍영감은 복덕방을 하고 있어서인지 오지랖이 넓었다. 복덕방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자신이 소개한 집주인과 세 사는 사람이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 그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늙은이나 아픈 사람이 없는가 하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처음 그런 주제넘은 관심사가 단순히 방을 얻으러 오는 사람과 주인이, 별 문제 없이 한 집에 어울려 잘 살 수 있을까, 돈 벌려는 속셈으로 비쳤으나 날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방을 소개하러 갔다가 그 집에 노인이 있으면 복덕방으로 장기나 바둑, 고스톱을 치러 불러내 심심풀이 술내기를 일삼아 벌였다. 나도 홍영감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여럿 있었다. 그해 종종 복덕방에 모여앉아

장기를 두다가 얼굴을 익히고 나서 홍영감이 어딜 나갔다가 떴다, 떴어 하고 들어서면 말없이 장례준비를 챙기곤 했다. 그때 홍영감의 눈이 불그스레했다. 홍영감이 나 보고 고영감이라 했다가 고씨, 라고 호칭을 바꾼 것은 홍영감 스스로 황혼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홍만기야, 들리지 않는 곳에서 나를 홍영감이나 늙은이로 부르든 상관없지만 눈앞에선 안돼. 펜스리 늙은이로 꼭 묶어놓고 쳐다보는 눈이 싫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는 장의사인 나를 보면서 자신의 황혼을 마주보고 있고, 먼저 간 친구를 위해 흘린 눈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신더러 홍씨라고 부르지 않고, 홍영감이라고 부른다고 매번 역정을 내지만 그 또한 자신을 알고 있는 까닭에 나를 고영감이라 했다가 고씨로 다시금 수정해서 불렀으리라. 두 사람은 그저 노인이었고, 늙은이였고, 할아버지였다.

홍영감과 둘이서 점포 안 벽을 하얀 페인트로 칠하고, 쥐구멍을 메우고, 들뜬 바닥을 시멘트로 덧칠하고 나니 어느새 저녁이었다. 두 노인은 거리의 평상 위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을 아랑곳 않고 술잔을 들었다. 하지만 시멘트를 바르면서, 벽에 페인트를 바르면서 힐끔힐끔 거리 쪽으로 내다보았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보잘것없는 살림살이에 쏠릴 때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막상 한길에 전시를 한 것처럼 펼쳐 놓은 옆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얼굴이 뜨끔거렸다. 할멈이 낱아빠진 세간을 모양새 있게 세우고, 보기 흉한 물건은 큰 물건 뒤에 숨기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 온몸에 쥐기처럼 퍼지는 수치심을 느낀 것이다. 할멈 때문이었다. 자신은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할멈에게 미안했다. 염색하지 않아 허연 머리로 점포 앞에 있는 서랍장 위에 보자기에 쓴 이불이 빠져나온 걸 자꾸 밀어 넣는 손질을 우울하게 바라보았다. 남들은 버리고도 남을 쓰레기 같은 살림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할멈이 자기의 속곳이 드러난 것처럼 감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게. 보아하니 주인이 지키지 않아도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스러우이. 하하하.”

“아닐세. 저 사람이야 찜질방에 가든지 하면 되고 난 여기 있겠네. 혹 아냐? 낮엔 빛이 안 나다 밤에 제 빛을 내 지나가는 행인을 호리게 될지, 허허허.”

홍영감은 자기 집에 와서 자야 한다느니, 나는 여기서 자겠다느니 옥신각신하다가 할멈만 하룻밤 홍영감네에서 신세지기로 결론을 내렸다. 할멈만은 거리 잠을 재우고 싶지 않았다. 평생을 함께 해온 세간과 거리에서 밤을 새우는 건 할멈에게 너무 가혹했다. 별 일 아닌 걸 가지고 입씨름한 걸 두 노인이 껄껄 웃으며 계면쩍게 삭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난데없이 오토바이가 달려오다 부딪쳐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인도를 등지고 두 늙은이가 살았던, 짐을 다 꺼내 텅 비어 있는 공간을 보고 앉았던 나는, 이 요란한 소리가 불품없는 살림살이로 일어난 사고라는 걸 단번에 알았다. 평상은 늘 점포 앞에 있었던 터라 인도가 넓어 사고가 난 일은 처음이었다. 시멘트 발라놓은 곳이 다 마르고, 페인트 냄새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내일 다시 저곳에 들어가 살아야 하나 암담해서, 홍영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떠나온 지 하도 오래되어 가물가물한 고향의 누런 보리밭이 머릿속에서 출렁출렁 물결칠 때였다.

“아니, 어느 꿩질 놈이 길거리를 전세 냈나. 아이쿠!”

그 소리에 나는 이미 평상에서 내려와 신발을 꿰었다. 할멈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청년과 찜뽕국물이 쏟아져면 가락이 사방으로 튕겨 흩어진 꼴을 멀거니 보다 쌓아놓은 라면박스에서 시선을 못 떼고 있었다. 겹을 집어먹고 떠는 할멈의 초라한 모습이 중국집 배달원을 더더욱 화나게 했는지, 그는 오토바이에서 벗어나자마자 두 눈 부릅뜨고 노파를 한주먹에 때려눕힐 듯이 험상궂게 인상을 썼다. 다치지 않은 것 같았다.

“이거 원, 거리를 제 집인 양 담장 쌓으려고 쌓았나.”

그러면서 건장한 청년은 나무토막 같은 다리를 들어 찾길 옆에 쌓아놓은 박스를 밀어 버렸다. 도로 쪽으로 넘어진 박스는 대충 담아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서 내용물이 튕겨 나왔다. 누렇게 바랜 오래된 책이 찾길 위에 흩어졌다. 할멈은 벌벌 떨고 있었고, 나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길을 누런 책 꾸러미에 던졌다가 이내 외면하고 말았다.

“저 무지막직한 놈 봤나? 아무리 넘어졌기로서니 인도 위를 달려 놓고선 누구 앞에서 그런 못된 짓을, 니놈은 애비 에미도 없냐?”

홍영감이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는 나 대신 펄펄 뛰며 나섰다. 한두 사람이 모여들더니 어느새 구경꾼들이 북적거렸다. 나는 참담하게 무너진 가슴으로 찜뽕이 쏟아져 난장판이 된 보도블록에서 시선을 거둬 찾길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차량이 책 나부랭이를 피해 멀찍이 달리고 있었다. 그렇다. 청년의 말대로 거리를

내 집 안방인 양 어질러놓고 당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엇에 홀린 것처럼 급작스레 일을 해치우다보니 바깥에 내놓은 살림살이가 어떻게 쌓여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정신없이 끌거나 들고 거리에다 부려놓았을 뿐이다. 소소한 것들은 할머니 한쪽으로 치운 것 같으나 그 박스만은 무거워서 귀통이가 뽀족하게 나오도록 도로변에 걸쳐져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한손에 철가방을 들고 인도를 전속력으로 달리다 박스에 걸린 모양인데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만약에 책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면 어쩔 뻔했는가.

“이보게, 젊은이?”

나직하나 이 한심한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목소리에 실어 부르는 소리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해괴한 꼴을 지켜보던 구경꾼, 싸움 아닌 싸움을 벌이던 두 사람도 나를 향해 돌아섰다. 내 음성에 난장판을 한순간에 헤쳐 버릴 만큼 깊은 울림이나 우울함이 배어 있었던가. 새벽 종소리를 들은 것처럼 골이 잔뜩 난 청년의 얼굴에서 분노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젊은이, 오해 없기를 바라네. 저 물건이 지나가는 자네에게 거치적거려 방해했다면 내가 사과하겠네. 젊은이 말대로 길거리를 전세내지 않았으니 말이야. 다치지 않아서 정말 고맙네. 자네가 다쳤다면 난 이곳에 없는 어떤 청년을 마음속에 불러내 원망했을 걸세. 음식값을 변상해줄 테니 그만 이 늙은이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늙어 주책 좀 부렸다고 생각해주게.”

나는 거기서 말을 끊고 찾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 쪼그리고 앉아 흠어진 책을 줍다 치마로 곱팡이 쓴 책들을 닦으면서 울음을 물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나는 공연히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밀어 넣으며 말했다.

“하어튼 젊은이에게 끼친 손해를 다 배상해줄 테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만 가시게나.”

중국집 배달원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내가 큰소리를 쳤다면 청년도 큰소리로 대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월의 무게로 어르는 나를 보고 벌써 기가 팍 죽어 소처럼 유순하고 고분고분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거부의 표시도 없이 쏟아진 음식찌꺼기를 내려다보다 철가방과 그릇들을 챙겼다. 사람들은 무슨 희한한 구경거리라도 있는 것처럼 모여들었다가 노파의 가난한 슬픔과 노인의 비장한 엄숙함과 그리고 젊은이의 방자한 모습이 빚어낸 한판의 국판이라는 걸 알고 총총 사라졌다. 어느새 흥영감도 할머니와 같이 책을 줍다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어보게 고씨, 이건 대학교재 아닌가? 경제학이라 . . . 이런 걸 뭐하려고 갖고 있나. 내다 버리게.”

처음엔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흥영감이 끝에 가서는 시통스레 내뱉었다. 그래도 할머니 책을 주워 소중히 차곡차곡 쌓았다. 나는 멍청하게 서 있다가 주머니를 뒤져 만원을 꺼내 그릇을 챙겨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젊은이에게 건네주었다. 오토바이를 탄 젊은이는 다시 평범한 청년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횡하니 가던 길로 갔다. 빗자루를 찾아 음식물을 쓸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한쪽에 치웠다. 짬뽕만 두 그릇이라 다행이었다. 자장면이었다면 당장 물로 씻어내야 했을 것이다. 지금도 민망하지만 곧 밤이 올 것이고 내일 날이 밝으면 짐을 다 안으로 들고 물을 인도에 짹 뿌려 씻어내면 될 것이다. 다시 평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흥영감이 책 한 권을 집어 들고 책장을 넘기는 걸 보았다.

“아주 오래된 책들이군. 어, 보자. 발행년도가 80년도네.”

그렇다. 한 무더기의 책은 경제학 서적이다. 장의사 노릇하는 늙은이가 경제학에 관한 서적을 갖고 있다는 건 어딘지 썩 어울리지 않아 보일 것이다. 그 책들은 아주 오래된 책이고 흥영감 말대로 두 늙은이에게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었다. 길거리에서 주워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다버릴 수도 없는 책들이었다. 비록 낡고 곱팡이가 슬어도 한때 주인의 눈을 환하게 밝혀 주었을 책들을 나는 내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방구석에 있을 때는 몰랐던 고풍스런 거울이 찬란한 햇빛에 나서자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섬뜩한 아픔과 세월의 무상함이 깃들어 있었다. 케케묵은 냄새가 나도, 바스라질 것 같아도 구시대 고전품 같은 우아한 슬픔이 배어 있는 그 책들은 장의사를 하는 노부부의 살림살이에 웬지 걸도는 물건이라도 죽을 때까지 끼고 갈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싸늘하게 두 늙은이가 덮은 담요 자락을 들썩일 듯이 흘러가는 걸 느끼고 옆에 누운 할머니를 돌아다봤다. 머리끝까지 덮여 있던 담요 자락이 이마 위로 절반쯤 내려와 있었다. 그래도 할머니는 꿈쩍 않고 누워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서 돌돌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어둠에 싸인 주름진 골이 수풀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계곡처럼. 나는 그 물소리가 웬지 처량하게 들려 담요를 머리끝까지 살며시 끌어당겨 덮어주었다. 그대로 두면 그 물소리가 할멈의 울음소리로 들릴 것 같아서.

초저녁부터 할멈은 홍영감 집에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더니 언제 옆에 누웠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행인의 발걸음이 뜬 때가 아난가 싶었다. 길가 평상에서 하룻밤을 지새울 양으로 고단한 몸을 누인 노파를 사람들은 무슨 동물을 쳐다보듯 흘끔흘끔 바라보며 지나갔다. 그것이 낮 동안 피곤하게 움직인 육신을 아무렇게나 눕히고 싶은 노인네의 자존심을 건드려 별떡 일어나 석고상처럼 앉아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고단했는지 누웠다 일어났다 반복하다 아예 담요 속에 파묻혀 버렸다.

발가락이 담요 밖으로 빠져나왔는지 다리 쪽이 덜덜 떨렸다. 몸을 일으켜 할멈의 발 언저리 부분의 담요를 꼭꼭 눌러주며 그 아담한 무더기를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쪼그라들어 어린아이처럼 자그마해져 비스듬히 누운 할멈의 몸은 어딘지 쓸쓸함을 안겨준다. 그 모습이 칠십여 년 동안 자식 키우고 일하고 웃고 울고 했던 그 몸이란 걸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다. 이날까지 살아온 세월이 고작 거리에서 잠잘 수밖에 없는, 추위를 참고 견뎌야 하는 황량한 별판에 내던져진 것 같아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손끝이 깃물러지도록 키워 놓은 자식은 흔들리는 세상에 빼앗기고, 그로 인해 웃음을 잃고, 남들이 싫어하고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슬픈 메아리만 가득 채워 놓은 몸만 여기 헐겁게 누워 있었다.

“못된 놈.”

죽은 듯이 누워 있던 할멈이 신음처럼 내뿜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녹슨 기계처럼 다시 누웠다. 그 소리는 중국집 배달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의 소리였다. 어쩌면 나에게 하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나는 가만히 심호흡을 했다. 달빛이 평상 위로 안개처럼 쏟아졌다. 달빛이 피피히 흐르는 속으로 어저께 홍씨가 안내해준 집으로 찾아갔던 일이 떠올랐다. 상을 당한 집은 조용하고 쓸렁했다. 집이 커 웅장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집은 유독 사람이 적었다. 마치 절간처럼 고요했다. 문상행렬도 내가 있을 때는 끊겨 있었다. 웅성거리는 소리도 없고 곡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딱 한 번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새어나왔을 뿐이었다. 그렇게 적막한 초상집에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대면한 주검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었다. 이미 영혼이 떠난, 차갑게 굳어 있는 몸은 지금까지 수없이 염습을 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기억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아무 저항 없이 몸을 내맡기고 있는 젊은이를 보고, 다시는 가슴이 더워지지 않는 그 주검을 보고 나는 속이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것이다. 안방에서 비칠거리며 쓰러질 듯 건넌 나이 지긋한 여인을 보고서 나는 삼십여 년 전 할멈의 모습을 발견하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눈썹이 보일 듯 말 듯 떨고 서 있는 중년신사를 보고 기어이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말았다. 젊은이는 오랫동안 앓은 데라곤 없는 생생한 얼굴이었다. 마치 잠자는 것처럼 누워 있는 그가 별떡 일어나면 쌀가마니도 너끈히 들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우람하고 탄탄한 육체였다. 그 생생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여기, 부모 앞에 빈 몸으로 누워 있었다. 젊은이의 죽음이 무엇 때문인지는 듣지 못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면 젊은이가 다시 살아날 것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날 나는 장의사로 살아온 나날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차디찬 몸을 만지면서 지난날에 대한 회한으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앞이 보이지 않았다. 부모는 기가 막혀서 울음길도 막힌 것처럼 뉘 놓고 서 있는데 그들 대신 내가 소리 없이 울었다. 부끄럽지 않았다. 그들은 왜 그러느냐고 물어오지도 않았다. 나도 당신들처럼 생때같은 아들을 먼저 보냈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에게 한 뼘의 땅조차 주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숨쉬기를 그친 채 차갑게 누워 있는 녀석을 집으로 데리고 갈 마음이 없었다. 자식이 제 발로 걸어오면 왔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버린 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집 떠나 공부하며 꿈꾸었던 도시의 강물에다 뿌리고 돌아섰다. 하지만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는 허전함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었다. 아들이 젊음을 불살랐던 도시에서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먼 줄 그때 알았다. 멀리로 얼굴이 노래진 할멈을 데리고 중간에서 내리고 싶었다.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한 부모가 무슨 자격이 있어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손자의 재물을 받으며 즐거워했던, 대대로 살아왔던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야 하는 나날이 끔찍했다. 그래서 다 버렸다. 땅도 버리고 이웃도 버렸다. 벌써 삼십여 년 동안 떠돌며 살고 있었다. 이곳이 몇 번째의 이사인지는 모른다. 농사꾼이었던 나는 땅을

파지 않았다. 흙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온갖 궂은일을 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저앉은 게 장의사였다.

이곳엔 무심히 걷다가도 속에서 치받히는 뜨거운 용광로가 올라오면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는 강이 있다. 나는 강가에 서서 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을 게워 흘려 보냈다. 그러면 또 얼마간 속이 차가워져서 살 수 있었다. 비록 아들을 흘려 보낸 강이 아니더라도 어디론가 흐르는 강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곳에 집을 풀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절렁대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난잡한 걸음걸이와 불량스런 말투가 귀에 거슬렸다.

“어, 저길 봐.”

“뭘 보라구 야단이야, 쌍.”

“짜아식, 눈요기를 시켜준다는데도 지랄이야.”

“젠장맞을, 예가 제집 안방인 줄 아나. 여름도 다 갔는데 별 요상한 꼴 다 보겠네.”

그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깨를 건들거리거나 춤추듯이 몸을 흔들면서 콧김을 훑 불기도 하고, 침을 찍 갈기기도 하며 느려빠진 걸음걸이로 가고 있었다. 도로변에 서 있는 가로수를 한 녀석이 손을 뻗쳐 가지를 툇 부러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참다못해 머리를 허공으로 들어올렸다. 꺾은 가지로 때릴만한 것이 눈에 띄기만 하면 타악 탁, 때리고 가는 녀석의 비칠대는 걸음을 보자 끄응, 신음을 뱉고 다시 드러누웠다. 젊은 그들의 행동거지에 분노보다는 절망이 앞섰다.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비슷한 또래만 보면 떠오르는 아들 때문에 젊은이들만 보면 두려웠다.

매년 방학이면 꼬박꼬박 내려오던 아들이 내려오지 않고 추운 도시에서 버틴 적이 있었다. 그땐 세상이 모두 놀라고 슬픈 일이 일어나 나도 정신이 어수선했 때였다. 장기집권해서 영원히 살 것 같았던 도시의 푸른 기와집 주인이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부하의 손에. 시골구석에서 큰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속속들이 알 수 없었지만 그래서 아들이 당장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들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느라 바빠서 못 간다고 편지만 달랑 보내왔다. 자연의 섭리로 기다리면 오는 봄이 아들의 편지 속에는 모두 함께 나서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통 알 수 없지만 웬지 모를 불안감에 아들을 기다렸다. 한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내려오지 않고 새 학기가 되었다. 들판은 초록 물결이 흘러들어와 일손을 기다리는 봄이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 그 와중에 저편 남쪽의 도시에서 큰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마을에 남쪽도시가 친정인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친정오빠가 죽었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지나갔다. 작년 가을에 평범하지 않은 대통령의 죽음이 준 충격의 여파가 너무나 컸던지 저편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주 소소한 일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들은 여름방학에도 내려오지 않았다. 이번엔 편지도 없었다. 올라가 보려고 했다가 농사일이 바빠 짬을 낼 수 없었다. 다시 겨울방학이 오고 아들은 연락도 없이 내려왔다. 낯선 친구들이 찾아왔다가 떠났다. 한테 방학이 끝나고도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등록금 때문에 그러려니 했다. 그때까지도 새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농협을 들락거리다가 할 수 없이 빚을 내어 마련했을 때 녀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 전날 찾아온 친구들과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아들을 기다리다 혹 서울로 먼저 올라간 게 아닐까 하고 부랴부랴 학교로 찾아갔다.

그러나 나는 급하게 마련해온 등록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이 이미 지난가을에 제적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자식이 내쫓긴 거대한 학교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녀석이 입학하던 날 나는 엄숙하고 진지한, 3월의 봄바람이 싱그러운 날에 힘이 쏙는 걸 느꼈다. 못난 부모지만, 아들을 뒷바라지하기에 부족하지만 용기를 불어넣어주었던 봄바람이 고향까지 따라왔던 것이다.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기쁨을 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감히 그 봄바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식이 쫓겨난 캠퍼스는 비애와 절망을 안겨주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곳에 내 아들만 없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아들만 사라져버린 학교에서 나는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하늘도 노랑고 땅도 흔들리고 나무도 춤추는 것 같았다. 봄바람은 저만치 꽃을 찾아 흘러가 버렸다.

학교에서 하숙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춥고 외롭고 쓸쓸했다. 올 때와는 달리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 친구들을 만나 아들의 행방을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아들은 잠수중이었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내게 아들의 친구는 쫓겨 다닌다고, 자신이 알아볼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했다. 그때 이미 친구들이 녀석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찾고 있었고 나중에 끌려간 것을 알았다. 그래도 그들은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라진 아들을 다시 만난 건 이 년 후였다. 한눈에 봐도 성치 않은 몸으로 돌아온 것이다. 흥흥한 소문이 먹구름처럼 하늘을 떠다니고 있었다. 아들은 서너 달 제 어미가 해주는 대로 몸을 내맡기고 있다가 어느 날 자다가 별떡 일어나 부르르 떨더니 잠을 자지 않았다. 들로 산으로 정신 놓은 것처럼 싸돌아다니다가 별안간 가방을 썼다. 제 어미는 아직 몸도 성치 않는데 다시는 학교든 도시든 보내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매달렸다. 그러자 아들은 제 어미가 지키다 한눈파는 사이에 빠져나갔다. 다시 도시로 돌아간 아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육 개월이 지난 후에 나는 아들의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 다시 푸른 기와집 주인으로 들어왔은 지 오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할머니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오늘은 죽은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구박받는 늙은이로 전락해 버렸다. 그런데 억울하게 당한 일이 가슴에 맺힐수록 십 년 전 일이든 삼십 년 전 일이든 오늘 당한 일처럼 생생하고 또렷했다. 기억이란 가장 무서운 게 아닌가 싶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잊혀진다는 말도 통하지 않는 걸 보면 삶에서 당한 고통은 죽어서야 끝나는 것 같았다. 칠십여 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온통 어두운 기억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았다. 기억이 이렇게도 질기고 모진지 오늘밤 그것을 몸서리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가을이 오면 겨울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잠잘 데도 마땅치 않은 터에, 양철 솥단지 하나라도 고락을 함께 해온 살림살이를 남들의 시선에 드러내놓고 보니 지나온 세월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본들 소용없지만 그만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속에 묻어둔 자식을 불러내 원망하게끔 만든 자신이 아직도 할머니에게 지렛대조차 되어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보리를 갈아엎을 때부터 후회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고향을 떠나왔다.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추워서 움츠리고 누워 있는 할머니를 보자 고향을 떠나온 걸 후회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디에서든 기억이 희미해지지도 않고 따라다니는 걸 보면 차라리 고향에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만큼이나 혹독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밤하늘도 바다 속처럼 온갖 생명체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파도를 타듯 달이 하얗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았다. 문득 자신이 하필이면 왜 죽음의 냄새를 제거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을까, 세상 속에서 그들을 영원히 지워내는, 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만나곤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골똘히 생각해보면 자식을 잃고 나서 흠을 파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 들녘에 나가기 싫었다. 생명을 가꾸기 싫었다. 그래서 반대로 주검을 거두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새파란 나이에 아무 죄 없이 죽은 아들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라든 속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아들이 죽은 후 땅과 하늘과 풀과 새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그저 늘 해오던 습관대로 신새벽에 나가 물꼬를 트고 피를 뽑다가 몸이 한없이 가라앉아 논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벼가 제법 자라 쓰러진 나를 하루 동안 감춰두고 내주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칠혹 같은 밤이었고, 사위는 이승이 아닌 저승인 것처럼 적요했다. 움직일 때마다 어둠이 물결거리는 것처럼 그 캄캄한 들녘에서 빠져나올 때 바람이 따라오고 나무가 따라오고 산도 따라왔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 놓은 집으로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마치 죽었던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달려오다 마당에 거꾸러지며 통곡을 했다. 이웃 사람들도 귀신이 들어서는 것처럼 기겁을 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도 별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 몇 시나 되었수?”

곰처럼 누워 있던 할머니의 말에 번쩍 눈을 떴다. 달빛이 두 늙은이의 외로움을 어루만지듯 그윽하게 담요 위에 쌓이는 것 같았다.

“글쎄, 아마 두 시나 세 시쯤.”

“왜 이리 춥죠. 영감은 안 추우시우.”

“홍영감을 따라가라고 했더니만, 쫓쫓. 이불을 더 덮는 수밖에 없겠지.”

자리에서 일어나 평상에서 내려섰다. 선뜻한 기운이 금세 온몸에 착 감겨 왔다. 꿈, 한가위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날씨가 이리 매울까. 낮에는 초가을 하늘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태양이 노쇠한 몸과 누추한 살림을 한 덩어리로 엮어땀던 걸 생각하며 번덕이 심한 밤을 애써 탓하려 들었다. 시멘트를 발라 놓은 점포 저 안이 꺼명하게 동굴처럼 깊고 아득해 보였다. 이불 보파리를 찾아 서성거리다 무겁게 몸을 일으키는 할머니를 보고 그냥 누워 있어, 내 찾을게,

하고 다시 짐 꾸러미를 훑어보았다. 나무 밑에 있는 박스가 눈에 띄었다. 책이었다.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다 그쪽으로 발걸음을 떼었다.

박스를 들어다 맨땅에 내려놓았다. 흥영감 말대로 그것들은 이제 소용없는 것이다. 주인 없는, 종이에 불과한 책을 추위를 녹여주는 땀감으로 쓰는 게 어떨까 싶었다. 세상은 깜깜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날씨는 늙은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추웠다. 양철통 하나를 찾아다 놓고 박스 속에서 잡히는 대로 꺼냈다. 묵직한 무게가 손목을 흔든다. 아들의 책이다. 녀석이 이 책을 펼치고 끼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했다. 책표지를 들치고 책갈피를 쓰다듬듯이 만져본다. 아들의 냄새 같은, 삼십여 년 전 이 책에 코를 박고 공부했거나 엮으려 졸았거나 하는 모습이 스쳐간다. 고리짝 속에 숨겨진 추억의 무게는 결국 아비의 가슴 속에 얹혀 있는 걸 알았을까.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은 삼십여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을 떠나 버렸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책을 바닥에 놓으면서 고개를 찢레찢레 흔들었다. 놓고 싶지 않은, 결코 가슴 속에서 떼어내고 싶지 않은 것을 땅바닥에 내려놓듯이. 다리에 뻗뻗한 기를 불어넣듯 꼴꼴하게 일어선다. 하늘을 한 번 쳐다본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와 얼굴을 어루만진다. 나는 오래된 연인에게 속삭이듯 가만히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제 데려가요. 그 말은 아직 아버지에게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아들을 데려가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한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오래도록 달을 쳐다보았다.

“라이터를 어디다 뒀더라.”

평상으로 가서 바닥을 떠듬떠듬 쓸었다. 담배를 피우고 나서 거기에 뒀던 것이다.

“이불 보따리는 저기 서랍장 위에 있는데 못 찾았수?”

“아니, 불을 지피려고”

손에 작은 라이터가 걸리자 파르르 떨렸다. 책을 펼쳐놓고 서너 쪽을 찢어 양철통 속에 던지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자 과란 불꽃이 머뭇거리다 검은 테를 그려가며 넘실넘실 타들어갔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추우니까 불을 지피고 있소.”

“하지만 길거리에서 순찰 중인 경찰 눈에 띄면 어쩌려고 그래요. 요즘 여기저기 이유 없이 불내고 가 떠드는 걸 못 들었수?”

“걱정 말아요. 한두 장씩 태우니까 불꽃이 커지지 않을 거요. 추워서 피웠다고 하면 설사 지나가다 봐도 노인네를 어쩌겠수. 쇠고랑차라면 차지 뭐. 아침까지 어쨌든 견뎌 봅시다.”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허어, 염려 말래두. 몸이나 녹여요.”

“태우고 있는 게 뭐유?”

“책이요.”

“책? 아니 그럼, 부일이 책을, 안돼요! 어떻게 그 책을”

“주인도 없는 책인데 놔둬서 어쩔 거요? 으흠.”

“차라리 다른 사람 주는 게 낫지 않겠수?”

불꽃이 확 피면서 주위가 환하게 살아났다. 어둠이 살짝 물러앉았다. 할멈이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다. 불길의 사그라져갈 때 또 한 권의 책을 찢어 불 속에 넣었다. 그때 잠자코 있던 할멈의 손이 불앞으로 쑥 디밀어졌다가 다시 들어갔다. 불빛에 드러난 얼굴에 눈물이 번진 걸 못 본 체했다. 자식을 잃고부터 얼굴이 반쪽이 되어 검불 같았지만 지금 복숭아씨처럼 잘잘한 주름살에 깡말라 있어도 곁에 있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밤중에 거리에서 불을 피운다는 게 다소 걱정되었으나 어느새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 불길 속에 지나간 날들이 가닥가닥 피어났다가 다 탄 재를 남기고 허공으로, 검은 하늘로 스르르 올라갔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불꽃이 거꾸로 박히는 듯 너울너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몸이 서서히 더워왔다. 책 한 권을 불길 속으로 집어넣을 때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처음엔 떨지 않았는데 몸속이 더워지자 손이 떨려왔다. 다시 불꽃이 화르르 타올랐다. 가슴에 묻혀 있던 그리움도 그 불길에 어쩔 수 없이 녹아내렸다. 한 권 한 권

탈 때마다 가슴속이 점점 비어갔다. 몇 권 안 남은 책을 물끄러미 보다 슬며시 집어 불속에 던졌다. 달빛이 발장게 물든 평상 주위를 그윽하게 비추고 있었다. 칠십 평생 온갖 볼 거 못 볼 거 다 본 눈길을 고요히 받아주듯이 은은하게 얼굴을 비쳤다. 하늘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제 책을 불속에 집어넣어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